

20220105 바른사회 MEET CONCERT

'이재명 요설'로,
한국, 검증되지 않은 '현대통화이
론'(MMT) 실험장 될 수도

조동근

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



이재명 후보의 요설(1)

◆“경제는 과학 같지만 실은 정치”

- ‘반박불가’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에’ 차라리 정치에 가깝다는 것
- 경제학은 ‘반증 가능성’(反證可能性, Falsifiability)’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
- 반증가능하기에 과학이고 그렇기에 정치일 수 없음

◆‘경제는 정치다’가 위험한 이유

- ‘**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**’는 오만
- 경제는 ‘정치의 하위 수단’이라는 독선
- ‘정의 개념’의 전도(顛倒) 가능성
- ‘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,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받는 게’ 정의

이재명의 요설(2)

◆ '기본소득 주창'의 원조는 박근혜라는 요설

➤ '기초연금 = 부분 기본소득'

➤ 기초연금 아닌 '노령수당'이 맞지만 받는 쪽의 품위유지를 위해 기초연금으로 명명

➤ 국민연금이 도입된 역사가 일천(1988년), 연금 혜택 없이 은퇴하는 사람들의 한시적 소득지원책으로 불가피

➤ 기초연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민연금에 흡수되도록 설계

◆ 기초연금과 기본소득은 전혀 다름

◆ 이재명,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결여

➤ 소득은 '부가가치의 기여분'을 현금화한 것

➤ 국민이 '기본소득을 청구할 권리'가 있는 것이 아님

➤ 인구 5천만, 국민소득 3만불'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는 작동 불가

이재명의 무지: 핀란드의 기본소득실험

◆핀란드 정부의 고민

➤ **실업수당이 넉넉하고**(임금대체율 80%) 지급기간이 길어(최장 500일) 웬만한 일자리가 나와도 **실업수당에 안주**

➤ 구인난 속에서도 **실업률이 9.2%까지 치솟음**

◆ **취업하더라도 계속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주면, 당장 기대엔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더라도 취업 할 것이라고 기대.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**

➤ **실업자인 기본소득 수혜자가 구직 활동에 나서면** 국가는 그만큼 실업수당을 줄일 수 있음

◆ **핀란드 정부는 만 25~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017~2018년 2년간 매달 560유로(약 74만원)의 기본소득을 지급**

➤ **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새로 구하더라도 계속 지급**하는 조건

➤ **핀란드 실업수당은 평균 1,000유로 안팎으로 기본소득의 거의 두배 이지만, 대신**

➤ **정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구직(求職)시 지급 중단**

◆ **실험결과, 기본소득이 취업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결론**

이재명의 요설(3): 일산대교 무료통행

◆국민연금(대체투자 일환으로), 2009년 일산대교(주)에 대림산업(26%) 등 5개사 출자 지분 100% 인수 포함해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 명목으로 2500억원 투자

➤ 연 8% 선순위대출(1250억), 연 20%의 후순위대출(360억원) 실행. 연간 이자 수입 160~170억원으로 추정

◆이재명 지사의 성토

➤ 초저금리 시대에 3%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%~20% 사채급 이자주고 돈 빌리는 거, 국민연금 악덕 사채업자 아니냐?

➤ 그럼 이재명이 3%로 대출 받아 1200원에 통행하는 **新일산대교** 건설해라

◆ 혜택은 집중시키고 비용은 분산시키고..

➤ '특정지역 주민'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하는 것

국토보유세 포기한 이재명의 '믿는 구석'

◆제1호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니고
'공정성장'이라고 본인이 밝힘

(21.11)

➤'기본소득'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
위한 '수단'

➤기본소득 재원은 '국토보유稅收'로
충당

◆ 하지만 "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국
토보유세 시행하지 않겠다"고 함

➤ 국토보유세 무너지면 모든 게 무
너지짐

◆이재명이 **믿는 위험한 구석**(논리):
MMT(현대화폐이론)

➤'국가 발권력'을 동원하면 얼마든
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고, 이를 기
초로 국민에게 **기본소득**을 지급하
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

◆이재명의 '**현대화폐이론 실험**'에
대한민국이 동원되는 게 언감생심
말이 되는 지?

➤'국가 실패'와 민간기업의 '사업실패'와는 층위가 다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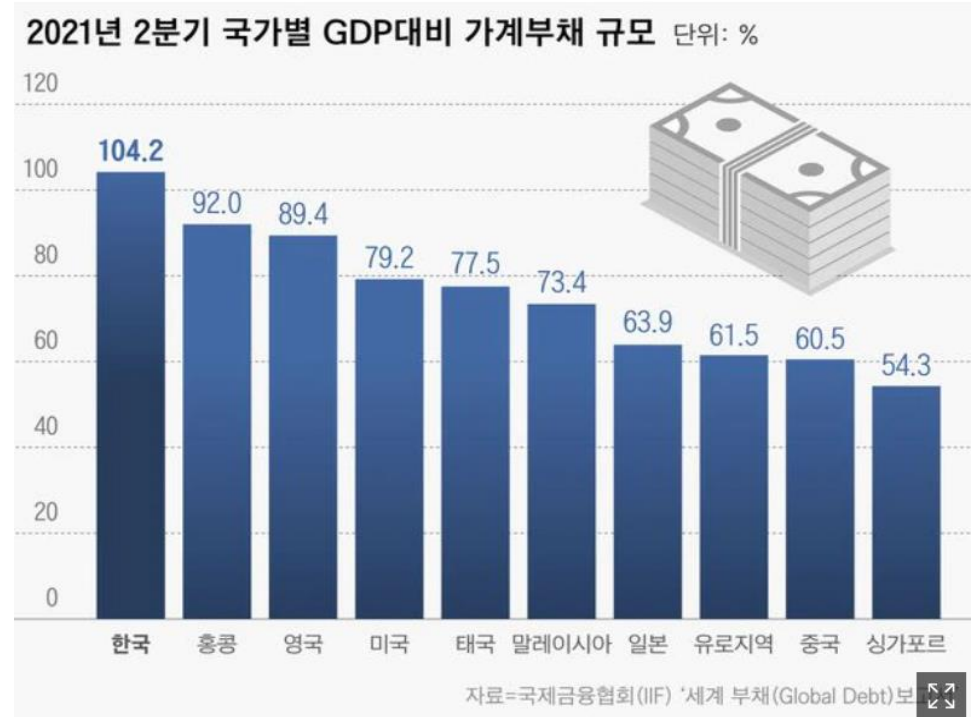
◆ 이재명, “개인은 부채를 못 갚으면 파산, 하지만 ‘국가부채는 이월 가능’

➤ ‘어디로 이월가능하다’는 건지?

- 부채 이월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음. 하지만 비참한 국가로 전락(베네주엘라)

◆ 국가가 빚을 적게 발행해 개인의 부채가 늘었다고 궤변

➤ 가계부채 왜 많아졌나? 부동산 정책 실패(부동산 가격 상승)로 개인이 빚을 진 것



가계부채 구성 (단위: 원, 2021년 2분기 기준)



◆금리 1%인상 '추가 이자부담' 시뮬레이션

- 가계 빚 1806조 원. 변동금리 대출 비중 70%
- $1806\text{조} \times 0.7 \times 0.01 = 12.6\text{조}$ **채무부담 순증**
- ◆**취약차주** (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차입, 소득 하위 30% 저소득층, 신용점수 644점 이하 저신용자), **영끌한 2030세대** 치명적

◆금리 발작(2021. 10. 29)

- 베니스 상인, "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 1파운드를 떼라"
- 금리에 영향 주지 않고 국채발행 불가능



◆재정확대는 금리인상 동반

- 채권금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, 재난지원금 인당 100만원 돌출발언
- 바로 3년 만기 국채금리(대표금리) 발작
-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예산 50조원. 국채 발행하면 그만큼 국채금리 인상 압력

MMT의 한계

◆ MMT는 '정부와 중앙은행'을 한 몸으로 인식

-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면 통화가 그만큼 팽창.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가지며 중앙은행을 휘하에 둠
- MMT하에서 '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'은 지켜질 수 없음

◆ MMT는 "인플레이션이 없다면"을 전제로 함. 통화를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'자산가가 아닌 일반 대중'에 돌아간다는 것임

- FED의 양적완화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(국채, 모기지증권)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가들만 혜택을 본다는 것임
- 기존 금융자산 매입이 아닌 '신규 화폐발행' (printing money)을 통해 일반 대중에 뿌리면 경기가 활성화돼 그 혜택이 일반대중에 돌아간다는 것임

◆ 이재명의 '神의 한수' (야무진 착각)

- **Zero 금리, 영구채를 발행하면** 국채상환 그리고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부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
- 발전기로 모터 돌리고 모터로 다시 발전기 돌리지 못함(영구운동기계 없음)
- 그런 영구채, 외국이 사갈 리 없고 결국 중앙은행이 인수(강매)

◆ MMT는 필히 통화증발을 유발

- 기축통화국에서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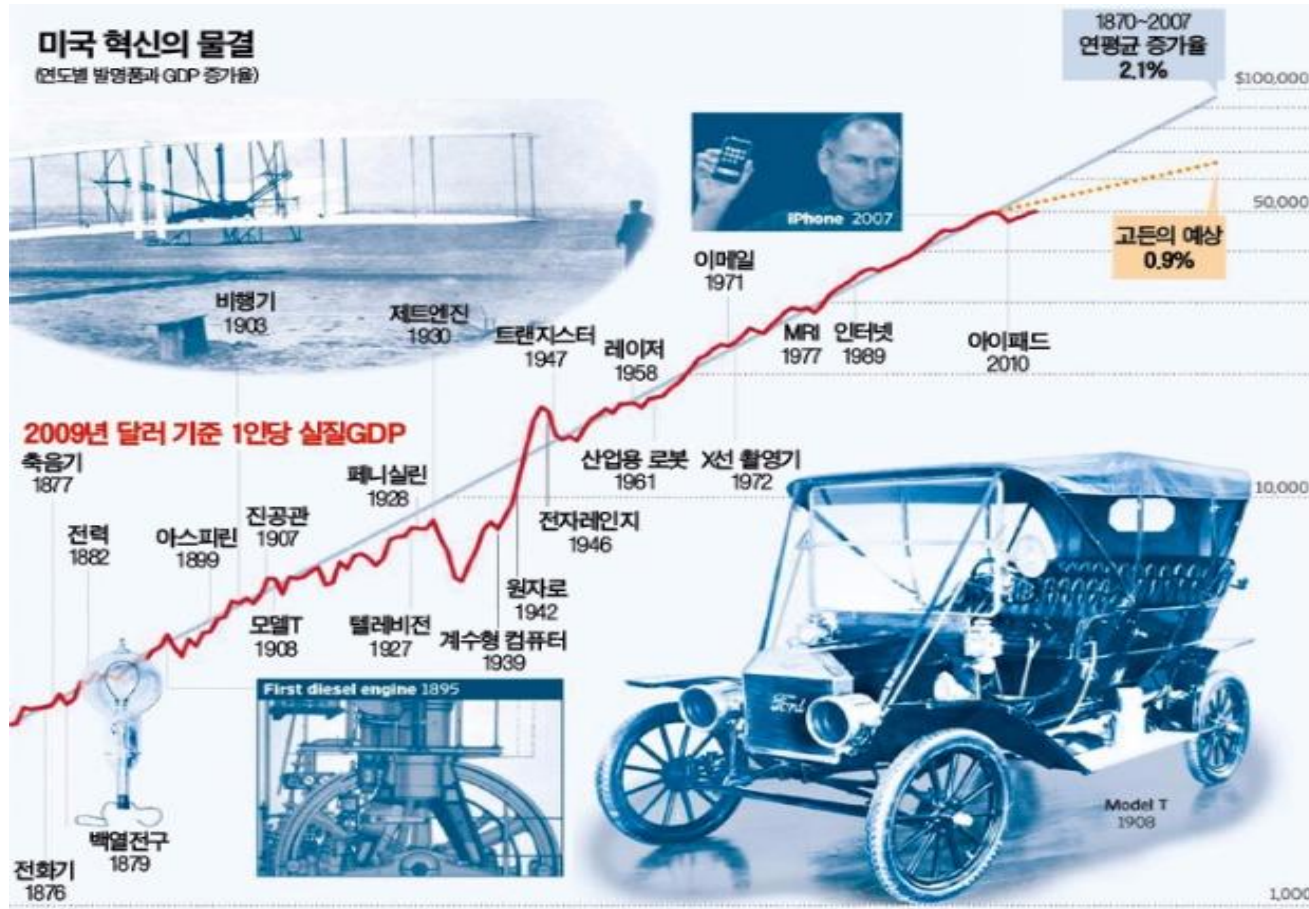
에필로그

- ◆화폐의 무제한 발행은 '통화에 대한 신뢰'를 떨어뜨릴 것임
 -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격을 잃은 화폐를 계속 들고 있을 국제 통화시장 참여자는 없을 것임
 - 베네주엘라 화폐를 외환보유 reserve에 담을 나라는 없을 것임
 - 2021. 12. 31일 미국과의 통화swap이 종료되자 터키와 통화swap을 맺은 것은 불가사의
- ◆MMT는 논리적으로 veto되었지만 좌파정치인(Bernie Sanders, Ocasio-Cortez)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음
 - 가짜는 '실패로 판명되기 직전'까지도 스스로를 새로운 대안으로 여김
 - 바보는 가짜를 철석 같이 맹신
- ◆ 미국의 출구전략 속도(tapering + 금리인상)가 빨라 짐
 - '원화 방어'에 몰두해도 부족한 판에, 통화 신뢰를 잃게 할 '무제한 화폐 찍어내기'에 함몰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
- ◆소주성이 '돌로 빵을 만들겠다'는 무지라면, MMT는 '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'는 오기

◆ 이재명의 정신세계

- 화폐 찍어 나눠 주면 빚을 갚아 모두 부자가 되고, 소비가 살아남
- 정부가 할 일은 '돈을 찍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필요재원'을 마련하는 것
-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면 노사 평화가 옴
- 대기업과 재벌의 (추가) 진입을 막으면 골목상권이 살아남

WSJ 분석한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



◆ '투자 주도, 혁신견인'의 실물성장이 진정한 성장

➢ 1870~2007년간 연률 2.1% 성장

◆ 이재명의 '전환적 공정성장'???

➢ 경제성장은 정치인의 자비, 선의 또는 요설이 아닌, '경쟁에 의해 촉발된 혁신' 그리고 '경제하려는 의지'에 의해 이뤄짐

◆ 부록: MMT. 무엇을 말하는 가?

◆ MMT를 수리화한 논문: Pavlina R. Tcherneva의 Monopoly Money: The State as a Price Setter

◆ MMT이론, "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유럽의 화폐를 통해 [세금](#)을 내도록" 하는 데서 출발

◆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[화폐](#)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

- 세금을 매기는 것
-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(납세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)
- 세금을 낼 돈을 발행하는 것

◆ MMT는 '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'이 아니라, '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'

- 정부가 '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'가 되도록 하는 것

현대화폐이론의 특징

- 1) 정부는 채권발행이나 징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화폐를 발행해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음
- 2) 정부-[중앙은행](#)의 이분법은 허상
- 3) 정부지출의 기반이 '세금+채권'이 아닌, 화폐의 발행
- 4)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해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수단
- 5)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[통화정책](#)을 쓰는 대신 세금을 상승시키는 [재정정책](#)을 쓰면 됨
- 6) 인플레이션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사용해 마진을 인상 한다거나 투기를 통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에 의해 유발
- 7)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**job guarantee**를 제공
 -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
 - 정부가 '**employer of last resort**'(ELR, 최후의 고용주)으로서 행동
 - job guarantee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저임금
 - 임금이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이 없음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의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.

조동근 010-9009-3833
dkcho0525@naver.com